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보 도 자 료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	
배포일자		2024년 6월 18일(화) 총 3매			
담당 부서	제물포르네상스 개발과	담 당 자	• 원도심지원담당 • 주무관	이동미 ☎458-7331 이신애 ☎458-7332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개항장의 모습 스케치로 담은 전시회, 21일부터 시민애집에서 - 1883개항살롱 시민 참여 프로그램 ‘찰칵!스케치’ 40점 선보여 - - 7월 16일부터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차 전시회도 -

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‘인천시민애집(중구 신포로39번길 74)’ 과 인천아트플랫폼(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, H동)에서 ‘찰칵! 스케치’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회에는 개항장의 풍경을 시민의 시각으로 표현한 어반 스케치 작품 40점이 선보인다.

앞서 1883개항살롱(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)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인 ‘찰칵! 스케치’를 운영했다. 20여 명의 시민 참여자들이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개항장 일대를 도보탐방하며 촬영한 사진을 10주간 어반 스케치로 표현하며 개항장의 현재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‘찰칵! 스케치’의 한 참여자는 “우연히 참가하게 됐지만 프로그램

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. 열심히 그린 작품이 전시돼 뜻깊고 기쁘다” 고 말했다.

작품 전시회는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‘인천시민애집’에서 1차 개최하며, 7월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1883개항살롱이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(H동 1층)에서 전시를 이어간다. 전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 032)766-9030~1로 문의하면 된다.

류윤키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“이번 프로그램으로 마주한 ‘오늘의 개항장’ 모습에서 쌓아온 역사를 느끼고 개항장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과 함께 개항장의 멋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‘찰칵! 스케치’는 1883개항살롱(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)이 개항장과 내항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하고자 기획한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‘개항장을 회상하다(수묵화)’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. 오는 10월에는 1883개항광장(내항1·8부두 앞)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즌3 ‘인천 내항 상상플러스(수채화)’를 개최할 예정이다.

〈붙임〉 「찰각! 스케치」 포스터

개항 1883
과거와 미래의 공간

찰각!

스케치

시민작가 강사 **고제민 작가**

김선희 김영신 김주영 김지영 김진순 박경옥 박선이 유향연 이로미 이윤주
이재연 이채린 이해경 임은미 임정금 정선미 정진옥 정현자 최미도 최정임

전시회

1차

2024

6.21 FRI — 7.14 SUN

장소

인천시민아트홀 (신포로39번길 74)

2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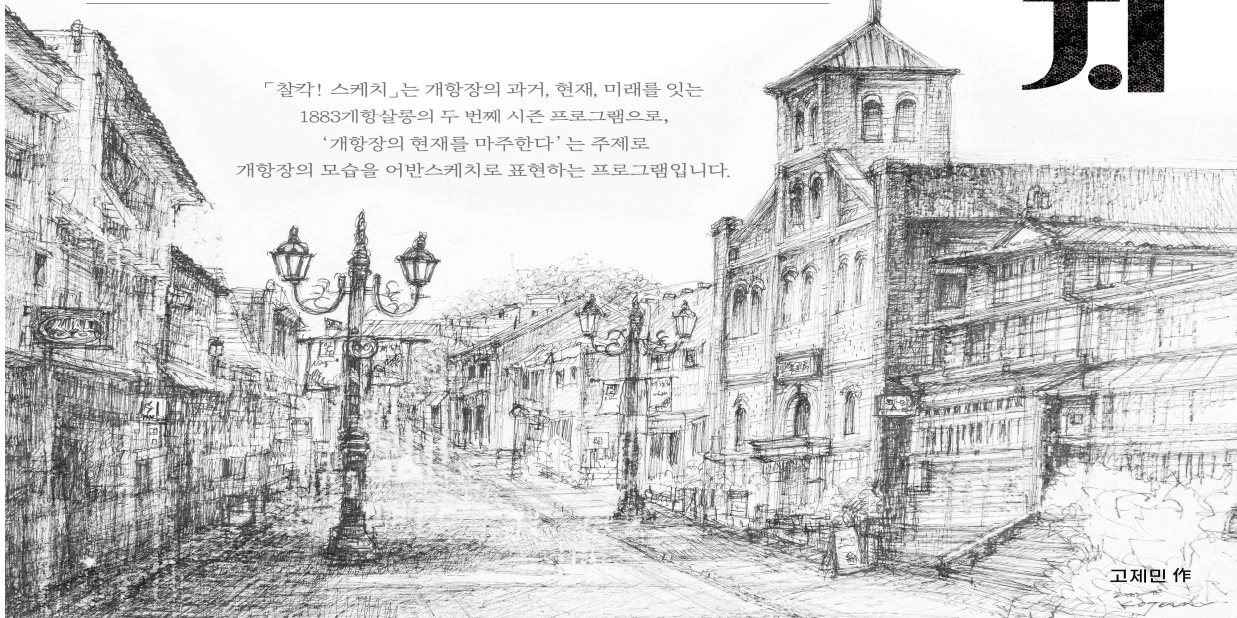
2024

7.16 TUE — 9.12 THU

장소

인천아트플랫폼 (제물량로218번길 3, H동 1층)

「찰각! 스케치」는 개항장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잇는
1883개항살롱의 두 번째 시즌 프로그램으로,
‘개항장의 현재를 마주한다’는 주제로
개항장의 모습을 어반스케치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

| 주최·주관 | 인천광역시